

감염병의 시대에 『여성문학연구』 50호를 출간하며

우리는 지금 재난 영화 속 주인공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전염과 감염의 위험에 시달리는가 하면, 영원히 종식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낯설고 불길한 미래에 대한 예감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근대의 과학혁명 이후 인간은 전염병의 파괴적 위력 속에서 신에게 자비와 구원을 갈구했던 나약한 인간의 시간에서 벗어났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인간 주체의 오만함을 비웃으며 문명의 자기 반성과 자기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코로나 19는 한국의 인문학 연구자들에게도 그간의 연구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며 ‘코로나’ 이후 인문학의 미래를 고민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는 감염과 전염을 통해 인간의 관계성 혹은 상호성을 일깨움으로써 우리 자신을 독립적, 자율적 존재로 가정하고 비판적 주체성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온 근대적 학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과의 우연한 접촉만으로도 쉽게 감염이 되고, 불의의 습격으로 질병을 앓거나 죽어가는 몸들은 인간이 의지적인 주체라기보다 지극히 취약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며 돌봄, 타자와의 공존 그리고 자연과의 공생을 위시로 한 대안적 사회를 향한 구상을 재촉한다. 앞으로 한국여성문학학회는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페미니즘인문학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감염병에 기후 재난까지 겹쳐져 길게만 느껴졌던 여름의 끝에 『여성문학연구』 50호를 선보이게 되었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페미돌로지, 페미니스트 시각의 아이돌 문화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돌’ 문화에 대한 페미니즘·젠더 분석을 시도한 논문들을 실었다. 그간 『여성문학연구』는 국문학에 한정하거나 텍스트주의에 갇히지 않고 우리 시대의 유의미한 문학과 문화적 실천을 포괄하는 책이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신의 그것도 대중문화 현상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특집은 『여성문학연구』의 범주를 넓히고 정체성을 쇄신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수아의 「소비자-팬덤과 팬덤의 문화 정치」는 아이돌 스타와 함께 ‘같은 것’을 추구한다는 팬덤의 허구적 공동체성이 신자유

주의 체계 하에서의 성공이라는 의미로 치환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성공을 위해 개인성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팬덤 역시 특정한 성과를 얻기 위한 희생 담론에 구속된다고 분석함으로써 최근 여성들의 팬덤 활동의 저항성을 상찬해 온 연구 경향의 비어있는 측면을 짚고 있다. 고윤경의 「여성 아이들을 향한 여성 팬 응시의 역동—소녀시대 여성 동성성애 팬픽을 중심으로」는 그간 문화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동성성애 팬픽을 페니스 없이도 도달가능한 오르가즘에 대한 욕망으로 읽고 있어 이성애중심적 로맨스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다른 서사의 가능성에 대한 탐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지행의 「서구미디어의 지배담론에 대한 방탄소년단 글로벌 팬덤의 대항담론적 실천 연구」는 최근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여성 팬덤 활동이 서구시장의 지배담론과 충돌하며 대항담론을 형성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어, 여성 팬덤 문화를 남성 아이돌들에 대한 여성형의 이상숭배적 현신으로 보는 기존의 통념을 부수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경태의 「돌보는 귀여움: 서투르지만 귀여운 베어 커버 댄스와 쿼어 친밀성」은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유행하는 짧은 베어들, 즉 큰 체구의 게이들이 걸그룹의 춤을 모방하는 커버 댄스 팀 활동을 케이팝 걸그룹이 상징하는 신자유주의적 성공과 그것을 확대재생산하는 진보적 역사에 제동을 거는 것이자 쿼어 친밀성의 표현으로 읽어내고 있는 매우 재미있고 독특한 논문이다.

『여성문학연구』는 47호부터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에 다시 읽는 여성 작가’라는 제목으로 연재물 형식의 기획 논문을 수록해 왔다. 이번 호에서는 전후 한국 여성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강신재와 박경리를 선정하고 이들의 작품을 여성작가의 ‘저자성’에 대한 규명과 여성문학사 앤솔로지 구축이라는 맥락에서 새롭게 읽고자 했다. 강신재와 박경리는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꼈으리라고 여겨진다. 김은하의 「1950년대와 나쁜 여성의 젠더 정치학 : 강신재의 초기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는 1950년대는 여성문학의 르네상스기였지만 “부르주아 여류”라는 명명(命名)의 젠더 정치로 인해 적극적으로 평가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당시에 신진에 속했던 강신재를 전후 냉전체제의 재편과 함께 더욱 강고해진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규범적 여성성을 초과하는 나쁜 여자들의 젠더정치성을 드러낸 작가로 읽자고 제안하고 있다. 김양선

의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의 여성/문학사적 위치—전쟁, 여성, 선정주의는 어떻게 여성문학의 전통이 되었나」는 박경리 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저평가된 대중적 장편소설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그간 여성 작가의 문학성을 폄훼하는 근거가 되어왔던 ‘선정성’ 같은 하위문화적 미학을 페미니스트적 독법으로 읽어내고 있는 논문이다. 여성 작가와 여성 독자가 대중문학의 주요 생산자/소비자였으며, 이는 남성엘리트중심의 미학주의를 넘어서는 여성문학사 정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많은 여성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참조점이 되어 줄 것이다.

『여성문학연구』 50호에는 이 외에도 일일이 언급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일 정도로 흥미로운 여러 편의 논문들이 실려 있다. 고정희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에 나타난 여성화자의 정체성 비교», 김복순의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특집 및 권두언을 중심으로», 이여진의 「전후 남성성 재건의 욕망과 여성의 대항 전략 연구—임희재의 장막극, 「꽃잎을 먹고 사는 기관차」를 중심으로», 이덕화의 「『토지』에 나타난 ‘노동적 공동체’와 『혼불』에 나타난 ‘근원적인 나」, 한경희의 「1970년대 여성문학장의 형성과 ‘보통’ 여성의 작가적 시민권 주장—박완서를 중심으로», 손유경의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은 논문 한 편에 영혼의 절반만 걸어야 할 정도로 실적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시대에 아랑곳하지 않은 묵직함이 돋보이는 논문들이다. 막대한 양만으로도 좌절감을 안겨주는 여러 개의 연구 자료들을 다루고 있는 논문들과 국문학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시기나 주제나 다루고 있는 논문들은 두고두고 동학들에게 자극과 귀감이 되어 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추천석사논문으로 김보라의 「레즈비언 연속체와 공동언어의 가능성—1990~2000년대 여성문학작품의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를 실어 젊은 연구자들에게는 표현의 장을 열어 주고, 중장년층의 연구자들이 최근 연구 동향들을 살펴봄으로써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이미 발표한 논문을 새롭게 다시 정리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김보라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독자 여러분께 서평으로 수록된 원영선의 「소설과 여성의 역사 다시쓰기—『소설의 정치사: 섹슈얼리티, 젠더, 소설』」를 꼭 읽어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최근에 번역 발간된 낸시 암스트롱의 『소설의 정치사: 섹슈얼리티,

젠더, 소설』은 페미니스트 국문학자라면 한번쯤 들어 본 소문난 문제작이지만 그간 번역이 되지 않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책이었다. 이 난해하기로 소문난 책의 내용과 그 가치를 친절하고도 깊이있게 짚어준 원영선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서평〉은 의외로 이용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탁 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서 특히나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독자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 맛있게 읽어주실 거라고 확신한다.

2020년 8월, 편집위원장

특집논문 페미돌로지: 페미니스트 시각의 아이돌 문화 분석

김수아	소비자-팬덤과 팬덤의 문화 정치	10
고윤경	여성 아이돌을 향한 여성 팬 응시의 역동 —소녀시대 여성 동성성애 팬픽을 중심으로	49
이지행	서구미디어의 지배담론에 대한 방탄소년단 글로벌 팬덤의 대항담론적 실천 연구	79
김경태	돌보는 귀여움 : 서투르지만 귀여운 베어 커버 댄스와 퀴어 친밀성	115

기획논문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에 다시 읽는 여성 작가

김은하	1950년대와 나쁜 여자의 젠더 정치학 : 강신재의 초기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144
김양선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의 여성/문학사적 위치 —전쟁, 여성, 선정주의는 어떻게 여성문학의 전통이 되었나	177

일반논문

고정희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에 나타난 여성화자의 정체성 비교	198
김복순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특집 및 권두언을 중심으로	225
이여진	전후 남성성 재건의 욕망과 여성의 대항 전략 연구 —임희재의 장막극, 「꽃잎을 먹고 사는 기관차」를 중심으로	271

이덕화	『토지』에 나타난 ‘능동적 공동체’와 『혼불』에 나타난 ‘근원적인 나’	297
한경희	1970년대 여성문학장의 형성과 ‘보통’ 여성의 작가적 시민권 주장—박완서를 중심으로	320
손유경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	377

추천석사논문

김보라	레즈비언 연속체와 공동언어의 가능성 —1990~2000년대 여성문학작품의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418
-----	--	-----

서평

원영선	소설과 여성의 역사 다시쓰기 —『소설의 정치사: 섹슈얼리티, 젠더, 소설』	440
-----	--	-----

회보 450